



리아호나 2012

지역 소식

신년 특집 기사 ①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신년 메시지

바로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트 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길에 놓일 어려움과 변화, 실망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 또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필멸의 삶은 우리가 가지는 단 한 번뿐인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크게 실감합니다. 기회들은 왔다가 또 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짧은 여정 동안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나쳐가게 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바로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삶에는 굴곡이 있고 세상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담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힘든 시간 속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며, 더 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³

일본 북동 지역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직후, 우리 지역 회장단은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참상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 끔찍한 자연 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11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일본 지진 해일 피해 당시 현장을 방문해서 회원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돋기 위해 매일 회의를 계속했다.



3월 11일 지진이 일어난 후 첫 번째 성찬식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말씀하던 중에 강력한 여진이 일어나 모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생존에 따른 안도감과 신앙의 영을 동반한 가운데,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진 후 있었던 첫 번째 성찬식에 참석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왔던 한 충실한 미망인 자매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도로가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기에 교회까지 자전거로 두 시간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자매님은 두렵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 날에도 헬멧을 쓰고 폐달을 밟았습니다.

물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자매님은 자전거 바구니에 자신의 유일한 구호 물품인 대용량 물통을 실어 오셨습니다. 이 물통은 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회원이나 그날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매님을 주차장에서 맞이했을 때, 빛이 날 정도로 밝은 미소로 응답해주셔서 그 자매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의 집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말씀하면서도, 눈과 찬비를 막을 수 있는 자봉이 남아있음을 감사히 여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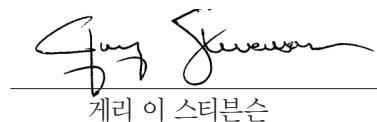
주께서는 필멸의 삶에 놓인 길을 인도하여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이 쉬울 거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⁴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의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의 것이라”⁵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역경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 회원들의 모범에 저절로 겸손해지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그분들의 모범과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몬순 회장님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게리 이 스티븐슨


마이클 티 링우드


고이치 아오야기

주

1. Church News, 2011년 8월 13일 Viewpoint
2.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토마스 에스 몬순
3.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조셉 비 워스린
4. 교리와 성약 6:36
5. 교리와 성약 78:17~18

지역 칠십인 신년 메시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지역 칠십인들이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다. 세 명의 지역 칠십인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한국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들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배움의 기회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부름에 따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겸손한 모범들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일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인도와 축복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그러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돋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올 한 해에도 제 작은 신앙을 행사하며 여러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성도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청소년들이 보여준 놀라운 신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보며 저는 우리 교회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청년대회를 통해 청년 독신 성인들의 기적과 같은 변화를 목격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잘 준비해서 그 대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지난 스테이크 대회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보다 많은 내 이웃을 구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구조 사업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담대히 서서” 신앙을 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

배덕수 장로



주님의 안전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 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 주 축복 주시리’라는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이러한 축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모사이야서
2:41)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모든
성약과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오희근 장로



교회의 경계를 넓히며

주 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은
교리와 성약 82편 14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거룩함이 더해지고 경계가
넓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약에 충실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또한 와드와
지부에서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는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EFY를 통해
담대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제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는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접견, 평의회, 훈련 및 교육, 방문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앙과 사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자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자주 느끼기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섬세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창호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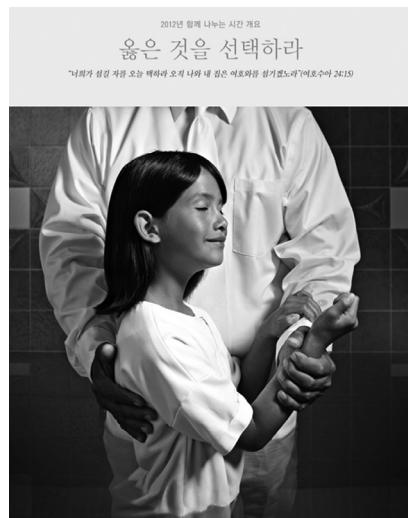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및 공과 교재 소개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이 구절은 1838년에 미국 미주리주
파웨이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의 일부로 원래는
교회의 감리 역원들에게 주어졌으나
2012년 지금,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침이 되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이 같은
주제 아래 청소년 대회, 영적 모임과
같은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앤버트
스미스’를 공부하게 된다. 이 교재에는
교회의 제8대 회장으로 봉사한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과
일화가 들어 있다. 반원들은 주님의
선지자가 남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러한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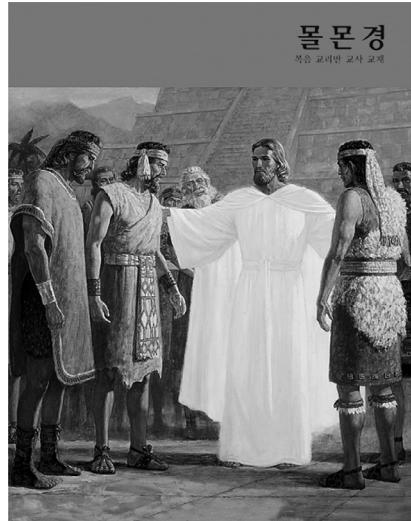


2012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

2012년 한 해 초등회 어린이들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주제 아래 매주 공과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주제 성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이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앤버트 스미스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에서는



몰몬경

2012년에 주일학교에서는 몰몬경을
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교회의 종석인
몰몬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반원들은 ‘반원
학습 지도서’를 통해 예습을 함으로써
공과 교사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 교과 과정들

일요일 교과 과정 중 선택 과정에는
복음 교육과 결혼 및 가족 관계,
그리고 성전 및 가족 역사와 성전
준비가 있다. 이 과정들은 감독단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 운영된다.
주일학교 시간을 비롯하여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라도 운영할 수 있다. ■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뜨거운 찬송, 소리 없는 기도

그들의 찬송에는 소리가 없다. 기도를 할 때에도 눈을 뜨고 있다.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의 안식일 풍경이다.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두 개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음도 없고 박자도 없는 찬송이 교실을 가득 채운다. 기도를 할 때는 온 몸을 사용한다. 수화라고 해서 단지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얼굴 표정으로, 몸 전체의 동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기도를 ‘보는’ 회원들의 얼굴에도 비슷한 표정이 스친다. 공과와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수화로 진행되고, 그래서 회원들은 교사와 연사의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

소리가 없다고 해서 결코 조용한 것만은 아니다. 회원들은 공과를 하는 내내 활발하게 토론한다. 12월 둘째 주 안식일에 중앙 농아 지부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제목의 공과가 진행되었다. 교사는 이길용 지부 회장이었다. 이길용 회장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역동적인 동작과 수화로 공과를 이끌어나갔다. 회원들의 질문도 중간중간 계속 이어졌다. 회원들은 자주 웃었다. 이길용 회장은 실과 끈의 차이에 대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실은 한 가닥이지만 끈은 여러 개의 실이 모인 것이라고 말하며 회원들이 조금 더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 농아 지부에는 열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열 명이면 평균적인 수치이다. 중앙 농아 지부는 1980년 4월 6일에 설립되었다. 그 전에는 1977년에 윤영구 형제가 침례 받은 후 당시 8와드에서 농아반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했다. 중앙 농아 지부는 그 후 발전을 거듭해 한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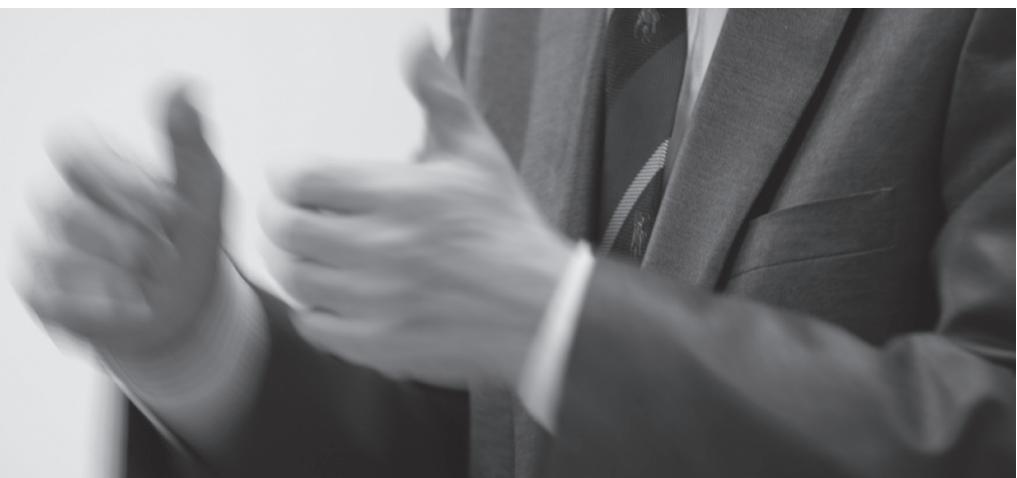
팔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모두 이사를 가거나 교회와 멀어졌다. 중앙 농아 지부의 초대 지부 회장이자 청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윤영구 형제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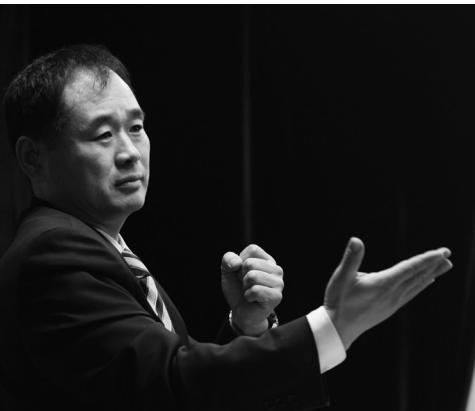
“1977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선교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가족 중 제일 먼저 제가 침례를 받았고, 그 후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중앙 농아 지부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만났고 또 그만큼 떠나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지부는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영구 형제처럼 중앙 농아 지부에



윤영구 형제와 말씀을 전하느라 바쁜 그의 손





좌측 사진부터: 공과를 하고 있는 이길용 지부 회장, 연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 한 회원이 기도를 하고 있다.

참석하는 회원 대부분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그들에게 복음이란 삶의 전부이자 행복의 근원이다. 주위의 친구들이 조금 더 지원이 잘 되는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도 주님의 참된 복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지켰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이길용 회장은 중앙 농아 지부를 위해 도움을 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화 통역 봉사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같은 바람은 중앙 농아 지부 회원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이 배운 수화 속에는 ‘책임 전가’라는 단어가 없다. 다만 공과와 성찬식이 진행되는 내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노력’이었다. 윤영구 형제는 성찬식 말씀에서 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더욱 많이 배우고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저활동 회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중앙 농아 지부의 회원들은 큰 꿈을 품고 있다. 그들이 공과 교실 겸 예배실로 쓰고 있는 작은 공간에

사람이 차고 넘쳐 큰 건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고 희망이다.

회원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삼삼오오 모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자주 웃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아름다운 주름이 펴져나갔다.

어쩌면 중앙 농아 지부는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전히십여 명의 회원이 작은 교실에서 공과를 하고 성찬을 드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굳건한 신앙과 행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리는 없지만 우렁찬 그들의 찬송이, 간절하게 표현하는 그들의 기도가 매일, 매주 주님에게 닿을 것이기에.

이길용 회장은 지부 회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떠난 모든 회원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담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개종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배우면서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면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없다면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참되고 가치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앙 농아 지부는 아직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중앙 농아 지부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비장애인 부모님들 중에 청각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중앙 농아 지부로 보내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복음 공부를 함께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신앙을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귀가 좋지 않지만 좋은 경험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그 후 내세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청각장애가 축복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혐난한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쇠막대를 잡으며 끝까지 간다면 축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



한국어판 몰몬경, 희생과 노력의 결실 ③

계

일 이 카 회장의 아내인 그원
카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다.

“계일의 가장 큰 걱정은
한국어 몰몬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번역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회원들은 책 전체를 한국어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리로 그들의 생활을
축복할 필요가 있었기에 남편은 이
일에 관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이 중요한 임무를 한인상 장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장로는 교회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는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한국어 및 영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겸손, 혼신, 인내심과
일에 대한 열정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장로는 번역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¹

에드윈 젠슨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한인상 장로와 함께 동구와
부산에서 동반자로 봉사하며 생활했던
것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었으며 저는 지부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선교사 두 명과
함께 전도를 마치고 지부로 돌아와 한
인상 장로를 만났던 어느 날 저녁이
기억납니다. 그 때 한 장로는 그날 해야
할 번역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날 번역한 구절 하나를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한 장로가 낭독할 때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는 몰몬경이
참되며 번역자로서 한 장로가 훌륭한
번역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²

한인상 장로는 자신의 수고를 이렇게
간략하게 전했다.

“일본어 번역본과 영어 몰몬경,
두 가지를 사용하여 선교 사업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제가 부름 받은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으며, 저는 주님의 손에 놓인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인
경험에 대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과 이곳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에서 그분의
목적에 대한 저의 지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 번은
한 장로는 복음 지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갖게 되었는지를 로스 콜 장로가
카 회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카 회장님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1965년 7월 한국에 도착한 스페너
제이 팔머 회장님 아래서 여섯 달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탈고를 위해
계속 일했으며, 해야 할 세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색인과
각주를 준비했습니다. 종이와 잉크, 활자
형태, 책 형식,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세세한 일들을 마쳐야 했습니다. 팔머
회장님은 원고를 검토하고 교정을 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래의 영어
각주가 영어 철자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나, 한국어로 번역되니 주어와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뒤바뀌고
뒤죽박죽이 되어 다시 순서를 바로
잡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선교사에서
해임 된 후에 팔머 회장님은 선교부에
계속 남아서 번역 책임자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몰몬경 번역이
끝나고 팔머 회장님과 함께
출판사로 갔을 때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인쇄기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 회장님 재임
시절에 영국에서 구입했던
종이는 습도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관 창고로 가서 종이를 살펴보았고
인쇄소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인쇄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해보았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들고 보진재라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쇄소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쇄를 진행시켰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7년
4월에 우리는 몰몬경 초판 3,000부를
인쇄하기로 보진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표지를 양각 무늬 처리한
하얀 가죽 장정 몰몬경 두 권을
슬트레이크시티에서 연차 대회를 갖는
동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과 고든 비
힐클리 장로에게 증정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단에서 팔머 회장님의 보좌로
봉사하던 이호남 형제가 두 분에게
증정했습니다.

한국어 몰몬경 초판은 카 선교부
회장님이 한국을 떠난 지 2년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초판 몰몬경을 모두
배포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약 3,000 명의 회원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1991년 말에는 100만 권째
한국어 몰몬경이 서울의 배부 센터에서
판매되었습니다.”³ ■

〈이 기사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주

1. 같은 책, 70~71 쪽.
2. 같은 책, 95 쪽.
3. 같은 책, 109~110 쪽.



우

리를 지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과 뼈로 된 몸을 주셨으며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구주이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약함과 범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이 수단은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사용 요금도 없으며 충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 수신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본 원리

앨마는 조랫인들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지노스의 말씀을 인용해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 곳에서, 집에서,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즉 어디서든 기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앨마서 33:3~10)

현세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기도

앨마의 가르침에 이어 앰울레크는 사람들에게 밭의 작물이나 양떼가 번성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해당됩니다.(앨마 34:20~26 참조) 앰울레크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앨마서 34:27)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도자들은 연차 대회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데븐 제이 코니쉬 장로는 병원 레지던트였던 시절의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어느 날 장로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25센트를 얻어서 치킨 한 조각을 먹고 힘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자에게는 이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겸손한 간구였습니다. 코니쉬 장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통닭집 건너편 길 위쪽을 보니, 땅에 떨어져 있는 25센트 동전이 보였습니다. 저는 감사와 안도의 마음으로 동전을 주워 왔고, 결국 닭다리 한 조각을 사서 맛있게 먹은 후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기도라는 특권”, 2011년 11월호 리아호나, 101쪽)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은 열두 살 무렵 일해서 모은 돈인 5달러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모든 곳을 뒤져보다가 바지에서 돈을 꺼내지 않은 채 바지를 세탁소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5달러 정도 잃어버리는 것은 별 일이 아니겠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 그 돈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했다고 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결국 돈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젖은 5달러 지폐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돈을 꺼내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깊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2011년 11월호 리아호나, 84쪽)

영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기도

경전은 영적인 은사를 얻고자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노스는 “죄사함”을 얻고자 기도했습니다.(이노스 1:2) 앨마는 자신의 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했습니다.(모사이야 27:14) 앨마 이세는 후에 자신의 아들 힐라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앨마 37:12~20)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 즉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제3니파이 19:9) 참으로 우리는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앨마서 6:6)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훌륭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며, 심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합시다.(앨마서 45:1) ■

한국취업정보센터

최 근 각 단위 조직
계시판에는
'교회의 취업
센터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었다.
한국취업정보센터를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업
선교사들의 노력이 담긴
포스터였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취업

선교사로 봉사 중인 이상태 장로와
홍경자 자매 부부, 김백주 장로와
김은숙 자매 부부를 직접 만나
한국취업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소식: 취업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직접 직업을
찾아 줍니까?

취업 선교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취업 선교사: 우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를 도와주고 면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용
정보도 알려줍니다.

지역 소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 그리고 면접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취업 선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들도록 코치해 주고, 비디오를



설치해서 모의 면접 과정을 촬영한
다음 무엇을 보완 해야 할지 조언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센터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역 소식: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 선교사: 교회 공식
웹사이트(www_lds.or.kr)의 '취업센터'
페이지에서 '취업 정보'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갈 수 있습니다. 주소는
www.cafe.daum.net/ldsemplishment
입니다. 이 카페에는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의 취업전문가들도 가입해서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취업에
관한 정보도 많습니다.

지역 소식: 취업정보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은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업 선교사: 우선 감독이나
지부 회장, 그리고 각 단위 조직의
취업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어떤 직업을 원하고 급여는 얼마나
받길 원하는지, 또 본인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취업전문가와 취업 선교사들이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소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주십니까?

취업 선교사: 구인
광고를싣고 있는
사이트에서 회원에게
맞을 법한 모집 광고를
찾아 알려줍니다.
그런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를
도와주고 면접 요령 또한

코치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 소식: 또 다른 도움도
있습니까?

취업 선교사: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나 자영업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워크숍에 참여하면 훨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식: 워크숍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취업 선교사: 우리 교회에 속해있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위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소식: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취업 선교사: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준비와
열정입니다. 저희들은 회원들의 그러한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회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직업을 구해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봉사는 나눔이다

나는 항상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재활용품을 판매해 생기는 수익금을 지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비영리기구를 알게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연두색 앞치마를 입고 봉사를 시작했다. 나는 책을 판매하는 일을 맡았는데 고객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을 미소로 대했다. 나에게 있어 봉사 활동은 그만큼 행복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있는 분야,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더욱 기뻤다. 나는 평소에도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소아암 어린이 돋기 나눔 장터에서도 나는 책 판매를 담당했다. 그날 행사에는 축제 코너도 함께 있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았다. 나는 손을 모아 확성기처럼 만든 뒤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책을 사라고 크게 외쳤다. 내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주의를 끌고 자신 있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은 바로 선교 사업 때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가진 책에 대한 지식과 대화하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봉사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홍세형 형제, 광주 스테이크〉



형에게 침례를 주던 날

내가 침례를 받은 지 1주년 되던 날, 나는 쌍둥이 형에게 직접 침례를 주었다. 형과 나는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알게 되었지만 침례를 받은 나와는 달리 형은 교회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새로 이동 온 장로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형은 장로님의 친절과 배려에 마음을 열고 함께 식사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그 뒤 형과 장로님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났고 얼마 뒤에 형은 성찬식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 동안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던 형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형이 복음 토론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장로님들과 교회 친구들의 간증과 사랑으로 형은 그 모든 것들 것 이겨냈다.

나는 형에게 침례를 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물속에서 형을 끌어올리던 그때, 내 마음속에는 우리 형제가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훌륭한 형제가 되어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며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싹텄다. 형은 침례 받은 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교회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열렸던 EFY에 참석한 뒤에는 나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저녁이 되면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 나는 이 복음이 우리 형제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나는 형을 침례 주던 그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소망을 이루고자 형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김일수 형제, 안양 스테이크〉

지역 단신

동방사회복지원에 전달된 따뜻한 사랑

지난 2011년 11월 8일 공보 선교사로 봉사 중인 펙 장로 부부와 복지 선교사인 조만구 장로 부부가 동방사회복지원을 찾았다. 현혈증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교회에서는 지난 2010년에 현혈 행사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현혈증 기부를 받았다. 그동안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회원들의 현혈증이 의미 있는 곳에 전달된 것이다.

동방사회복지원은 부모가 될 준비를 채 갖추지 못한 미혼 부모와 영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한국공보위원회가 영아들의 건강을 위해 현혈증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기증하였다.

조만구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꺼이 현혈증을 기증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작은 봉사가 한 장, 한 장 쌓여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관련 있는 아주 뜻깊은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국공보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사회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단순히 교회를 알리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앞장 설 계획인 것이다. ■



lds.or.kr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6명/해외 2명



김건 장로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이성원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대전 선교부



류홍섭 장로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대전 선교부



이영환 장로

서울 영등 스테이크
강동 와드
부산 선교부



심자용 장로

용산 군인 지방부
영어 지부
시드니 선교부



이창민 장로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윤현아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템플스퀘어



홍성아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이성재(전임: Chapman, Todd Ezra 장로)
원주 지부 회장: 최내영(전임: 정병일)

대구 스테이크

김천 지부 회장: 김창호(전임: 황준성 장로)

울산 지방부

지방부 회장: 이준택(전임: 강형구)
제1보좌: 구자길(전임: 구자길)
제2보좌: 정외곤(전임: 정외곤)

기사를 기다립니다

후기 성도 다문화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을 알고 있다면 aron1979@hanmail.net나 02-2232-1441(내선:564)로 제보해 주십시오.